

브랜드 콜 '콜비 받겠다' 시에 통보

운영위 사무국장 '횡령혐의'로 검찰조사 시의 자료요구에 위조문서 보내... "시민 농락, 평택시 책임져야..."



지난해 12월 브랜드 콜택시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1씨가 평택시 브랜드 콜 지원금 6억여 원 중 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브랜드 콜택시 납품업체 A사가 기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고 브랜드 콜 운영위원회의 통장사본을 요구하자 1씨는 통장 사본을 위조해서 보내왔다"며 "거래은행의 입출내역을 조사해 횡령사실을 밝혀내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2015년에 추진된 브랜드 콜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 제공'과 '택시업계 영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한 평택의 콜택시다.

당초 시는 관내 1570여대의 택시 중 900여대가 브랜드 콜에 가입할 것이라 예상해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650여대만 가입했다. 이로 인해 예산 8억 원 중 6억여 원을 지원하고 2억여 원을 반납했다.

기존 운영위가 횡령사건 등 파국으로 치달자 새로운 지도부가 설립됐지만 이들은 콜비를 받지 않겠다던 약속과는 다르게 운영·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6월 16일부터 1000원의 콜비를 받겠다고 최근 시에 통보를 해온 상태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택시호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원금을 준 것이지 콜비를 '받아라, 마라' 하고 운영에 관여할 만한 입장은 못된다"고 시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 J씨(39)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자신들만을 위한 영업을 하겠다는 이해 타산적인 제안에 불과했다"며, "시민을 농락하는데 한 몫 한 평택시가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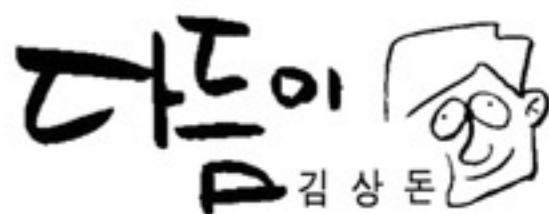
C업체 택시기사 P씨(53)는 "카카오 택시와 비교해가며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경우가 많다"며 "또 브랜드와 카카오를 함께 확인하다보니 운전이 집중할 수 없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브랜드 콜택시가 안정화 될 때까지 매월 1천만 원(콜센터 직원 7명의 월급분씩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이를 추경에 반영했으나 평택시의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브랜드 콜은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라는 일부 시민과 택시업계종사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평택시 또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의 폐해에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평택해경 낙시어선 위법 행위 13건 적발 안전 저해 행위 등 집중 단속

평택해경서(서장 김두형)는 지난 5월 한 달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낙시어선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 13건을 적발했다.<사진>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 해경센터,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해상치안 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으며, 지자체(화성시, 당진시, 평택시) 및 수산업협동조합(경기남부, 당진)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평택해경은 낙시어선 영업구역 위반(낙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8건, 해기사 면허 미비(선박직원법 위반) 2건, 항

만 내 낚시 행위(항만법 위반) 1건, 어선검사증서 미비(어선법 위반) 1건, 낙시어선업 신고 확인증 미 개시(낙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1건 등 총 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꾸준한 안전 홍보 활동으로 구멍조끼 착용, 음주운행 금지 등 중요한 기본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안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이 관할하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낙시어선 221척이 영업하고 있으며, 한 해 8만2000여 명(2016년 기준)이 낙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이동저수지 긴급 준설공사' 착수 농업용수 공급위해 대책마련 시급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지사장 정인노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저수지의 담수용량을 키우기 위한 긴급 준설공사에 착수했다.<사진>

평택지사는 가뭄으로 이동저수지의 퇴적물이 드러난 지점이 적은 비용대비 준설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 6월 30일까지 정부의 긴급 가뭄 대책비 4억2000만 원을 투입해 토사 3만 3000여m³을 준설할 계획이다.

현재 이동저수지의 저수량은 3,550천m³으로

유효저수량 2090만6000m³의 17% 수준으로 평년의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평택지사에서는 평택시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종합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해 증장비와 양수기 등 동원, 인근하천의 물을 끌어들이고 암반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퍼 올려 임시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정인노 지사장은 "기상이변으로 평택과 안성, 용인 지역의 영농철 가뭄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평택호 물을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현대화 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